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카디안 코리아 리더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대형 우량주 중심의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

- 리스크관리에서 금융공학기법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세스 확립, 위험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제공 및 운용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운용업무 및 포트폴리오 위험관리에 대한 지원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273억 원

-모투자신탁 318억 원

펀드유형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 모투자신탁 편입비: 90% 이상
- 모투자신탁 주식편입비: 60% 이상
(2014년 11월 7일 종류형 전환)

설정일

(운용펀드 : 2006년 05월 25일)

- 클래스 A : 2014년 11월 07일
- 클래스 A-E : 2014년 11월 14일
- 클래스 C-E : 2014년 11월 13일
- 클래스 C-W : 2015년 01월 06일
- 클래스 S : 2014년 12월 09일

벤치마크 KOSPI 100%

신탁업자 한국씨티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4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3영업일	4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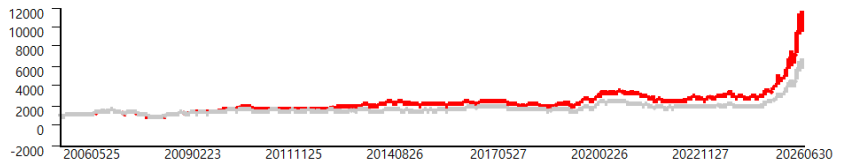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0.21%	77.65%	125.83%	210.27%	225.06%	294.75%	218.99%	985.86%
클래스 A	-0.35%	77.10%	124.33%	205.67%	214.87%	276.09%	193.70%	358.18%
클래스 A-E	-0.30%	77.27%	124.82%	207.27%	218.42%	282.58%	202.41%	375.15%
클래스 C-E	-0.31%	77.26%	124.76%	207.02%	217.84%	281.50%	200.92%	367.04%
클래스 C-W	-0.27%	77.41%	125.18%	-	-	-	-	124.45%
클래스 S	-0.30%	77.32%	124.91%	207.43%	218.74%	283.14%	203.15%	381.41%
벤치마크	0.00%	67.77%	101.14%	175.95%	202.97%	230.56%	157.12%	535.71%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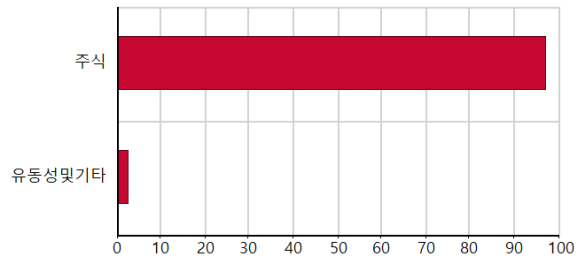


출처: AITAS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6년 06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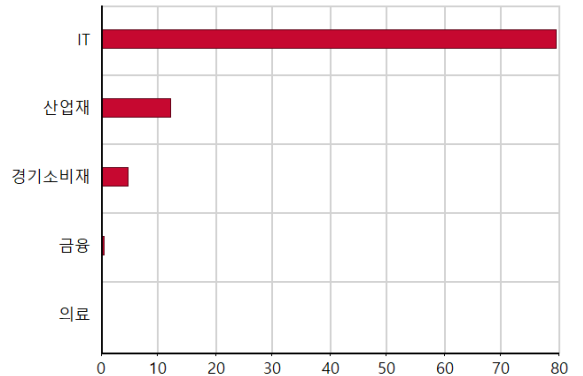
<전체>

순위	자산명	비중(%)
1	주식	97.3
2	유동성및기타	2.7



<주식 업종별>

순위	자산명	비중(%)
1	IT	79.7
2	산업재	12.2
3	경기소비재	4.9
4	금융	0.5
5	의료	0.1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6년 06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주식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삼성전자	전기.전자	28.3
SK하이닉스	전기.전자	26.5
SK스퀘어	금융	7.6
삼성전기	전기.전자	6.4
삼화콘덴서	전기.전자	2.7

종목명	업종명	비중(%)
신세계	유통	2.4
인텍플러스	기계.장비	2.1
피에스케이	기계.장비	2.0
삼성물산	유통	2.0
HD현대중공업	운송장비.부품	1.8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1.7% (판매 1%)
- 클래스 A-E : 총 연 1.1% (판매 0.4%)
- 클래스 C-E : 총 연 1.2% (판매 0.5%)
- 클래스 C-W : 총 연 0.7% (판매 0%)
- 클래스 S : 총 연 1.05% (판매 0.35%)

(공통사항)

운용 0.65%, 신탁 0.0375%, 사무관리 0.0125%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 납입금액의 1.0% 이내
- 클래스 A-E : 납입금액의 0.5% 이내
- 클래스 C-E, C-W, S : 없음

후취수수료

- 클래스 S : 환매금액의 0.15% 이내(3년 미만 환매 시)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6월 KOSPI는 전월 대비 0.00% 상승한 8,476.48pt, KOSDAQ은 14.76% 하락한 916.18pt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KOSPI 지수는 6월 한달 간 보합으로 마감하였으나, 월 중 서킷 브레이커 3회, 사이드가 9회가 발동되며 일간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높은 수준의 변동성 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월 초부터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은 반도체 대형주의 독주와 젠스 항 방한 기대감으로 9,000pt 돌파 시도를 하였으나, 브로드컴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과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금리 급등 우려가 겹치며 글로벌 반도체주가 조정을 받으며 다시 7,400pt선까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월 중순에는 미국 금리 상승 부담과 미구과 이란 갈등 고조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으나, 종전 협상 진전 기대가 확산되며 투자심리는 빠르게 회복되었고, 미국과 이란 종전 MOU 체결과 호르무즈 해협 통과 재개 소식에 유가가 하락하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재개되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대형주 강세가 더해지며 KOSPI 지수는 사상 첫 9,000pt 선을 돌파하였고, 9,300pt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나, 월말로 갈수록 반도체 고점론이 재부각되고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가 집중되며 지수는 상승분을 반납하며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유통, 인터넷, 반도체 업종이 상승세를 보인 반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철강 업종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41.50원으로 전월 대비 2.37% 상승했고, WTI 기준 국제유가는 전월 대비 20.44% 하락한 배럴당 69.5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급 주체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54.5조원과 2.6조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역대급 규모인 58.7조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펀드에서는 5월부터 반도체 대형주의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중소형주의 비중을 줄이고 IT 대형주들에 대한 비중을 늘려 대응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6월 중에는 반도체 대형주들의 대규모 주주환원 기대감이 강화됨에 따라 SK스퀘어의 비중을 늘려 전체적인 반도체 업종 비중을 추가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펀드에서는 반도체의 이익 모멘텀의 낙수효과를 보는 종목들에 대한 선별을 통해 비중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업종은 유통 업종으로 중국과 일본의 갈등으로 인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수 증가의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에 백화점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내국인들의 소비 확대로 실적 추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환율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이라 판단하여 6월 중에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 대응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인터넷, 유통 업종이 펀드 성과에 긍정적이었던 반면, 전자부품, 기계, 자동차 업종은 펀드 성과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종목별로는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규모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SK스퀘어, 국내외 메모리 업체들뿐만 아니라 중화권 고객사 및 인텔의 투자 재개에 힘입어 안정적인 실적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피에스케이, 외국인 관광객 효과뿐만 아니라 내국인 소비 확대로 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신세계가 펀드 성과에 긍정적이었습니다. 반면, 기판 모멘텀으로 상승한 이후에 애플의 판매 전락과 관련된 노이즈가 발생한 LG이노텍, 반도체 중심의 주가 차별화로 로봇 테마가 소외되면서 하락한 로보티즈, 지수 편입 기대감이 불발된 파두는 펀드 성과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7월은 매크로 이슈들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2분기 실적에 집중하며 시장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국의 경우,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나, 이는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보다는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를 축소해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다른 불확실성 요인은 7월 FOMC에서의 케빈 워시 신임 연준의장의 발언이 매파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6월 FOMC에서 물가와 단기금리 전망을 상향하면서도 장기금리 전망은 3.1%로 유지하고 있어 연준은 아직 인플레이션 부담을 구조적인 요인으로 보고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으로 인해 유가가 하락하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약해지면서 금리 상승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어 금리 불안으로 인한 조정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KOSPI지수의 이익 추정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업종의 경우 하반기 이후 추가적인 메모리 가격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6월 말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와는 달리 하반기 실적 추정치는 추가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 실적 발표 이후에는 다시 주가가 상승 추세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7월에도 이익 추정치 상향을 바탕으로 한 주도주와 소외주의 격차에 대한 부담감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부담감과 KOSDAQ 지수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기대감으로 업종 순환매가 나타나며 변동성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주도주의 이익 모멘텀이 재차 강화되는 국면을 맞이하여, 지수는 전고점을 다시 경신해가는 상승 사이클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분기 실적발표를 앞두고 국내 반도체 대형주의 주가는 상당기간 횡보세를 보였습니다. 그 당시의 반도체 주가에 대한 우려는 QoQ 가격 상승 모멘텀의 둔화와 가격 피크 가능성, 주가를 6개월 이상 선행하는 반도체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비관론이 투자 심리를 지배하고 있었고, 터보 쿼트와 같은 탐재량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이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과거에 변동성이 너무나 컸던 업종의 실리적인 특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분기 실적발표를 앞두고도 이러한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라진 점들에 대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반도체 가격의 상승의 시작은 모두 제한적인 캐파 배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HBM으로 캐파를 전환하면서 캐파 축소 효과가 나타났고, 넘쳐나는 수요가 범용 메모리까지 확대되면서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이끌어왔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비싸지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이 모색이 되고 있고 이는 낸드 가격의 중장기 상향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HBM은 가장 고부가가치 아이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범용 메모리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2분기 실적 이후에 남아있는 것들은 제한된 캐파로 인한 사이클의 장기화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반기 메모리 가격 전망치 추가 상승과 2027년 HBM4 가격의 예상보다 큰 폭의 상승입니다. 이는 다시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 전망치를 추가로 끌어올릴 요인들이 과거와 같은 짧은 사이클의 변동성 높은 실적이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쓸림현상의 심화와 부담에 따른 불편함을 시장에서는 많이 얘기하지만, 그러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장 실적 모멘텀이 좋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종목은 여전히 메모리 주식들입니다. 이에 따라 쓸림에 대한 부담으로 업종 순환매에 대비한 포트폴리오로 전환하는 것이 시간가치 개념으로는 여전히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향후에는 2027년을 대비하여 메모리 대형주의 모멘텀이 축소되는 국면에서 메모리 호조의 낙수효과를 보는 종목들로의 점진적인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종목군들을 선별해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되, 기존 팜 투자 일정을 앞당기는 것을 반영해 전공정 장비 주들에 대해서는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대형 반도체 종목 이후의 업종 상승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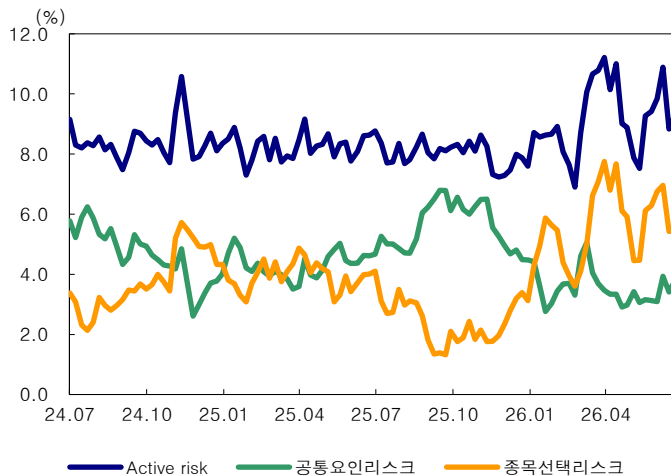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수익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리스크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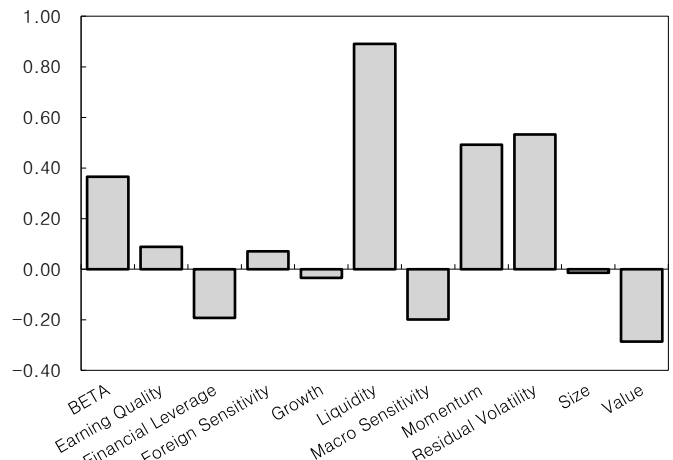
	2026-06-30	2026-05-29
Active Risk ¹	10.12%	9.41%
공통요인 리스크 기여도 ²	3.50%	3.12%
- 스타일 리스크 기여도	5.18%	2.83%
- 섹터 리스크 기여도	-1.68%	0.29%
종목선택 리스크 기여도 ³	6.62%	6.29%
베타	1.27	1.21

1. Active Risk는 벤치마크 대비 펀드의 초과 수익률에 대한 변동성으로 공통요인 리스크와 종목선택 리스크로 구분됩니다. Active Risk 수치가 높을수록 펀드가 벤치마크에 비해 적극적으로 운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통요인 리스크는 스타일 및 업종 리스크와 공통요인간의 상관관계로서, 주식시장 전반에 미치는 리스크를 의미 합니다.
3. 종목선택 리스크는 경영성과, 노사분규 등과 같은 개별기업의 특수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리스크로서 공통요인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기업 고유의 리스크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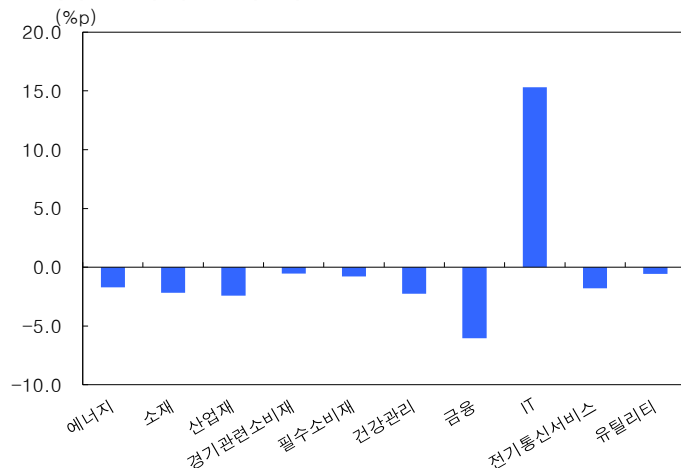
<Active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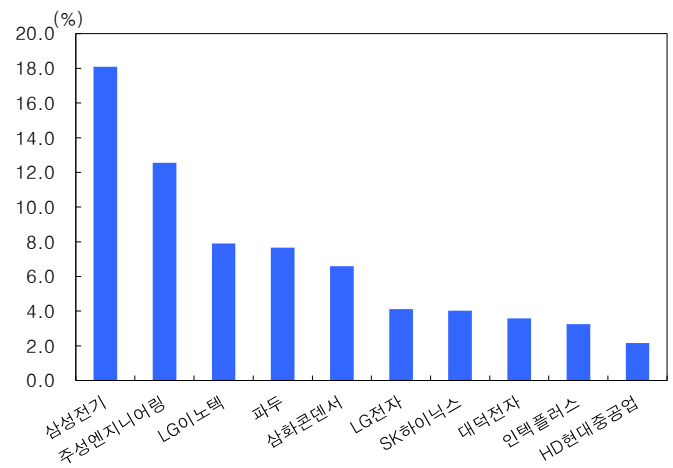
<벤치마크 대비 스타일 비중차>



<벤치마크 대비 섹터별 비중차>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



분석 결과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는 5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6월말 현재, 코리아리더스증권모[주식] 펀드의 Active Risk는 10.12%로 전월대비 증가하였습니다.
- ▶ 종목수는 전월대비 3개 종목 감소하여, 37개 종목을 유지하고 있고,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성향은 변동이 없었으나, 벤치마크 대비 'IT', '산업재' 등의 비중 차이는 증가하였고, '금융', '경기관련소비재' 등의 비중 차이는 감소하였습니다.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 5월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상승하였고 'HD현대중공업'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하락하였습니다.
- ▶ 종목 선택으로 인한 리스크는 전월대비 증가하였고, 종목집중 위험은 적절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 ▶ 동펀드는 'Value'보다는 'Liquidity'가 높은 스타일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판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 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액은 과세대상입니다.